

제6장 두 레

두레는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이다.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개되면서 보편적인 농민생활풍습으로 정착되었으며 농민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두레싸움·두레밥·두레기·두레놀이 풍습 같은 농민생활 풍습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 두레는 소농경영(小農經營)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 되었으므로 공동노동으로서의 진취성과 농민들의 자주적 성격이 매우 강한 긍정적인 조직이었으며, 두레의 상부상조 전통은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자리 잡았다

보령지역에도 대부분의 마을에 두레가 있었으나, 해방 이후 사라지기 시작하여 1960년대 이후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주민들의 구술에 의해 조사할 수 있었던 2개 마을의 두레를 소개한다.

1. 동대동 시령굴 마을 두레

1) 두레의 조직

시령굴 마을은 동대동의 북동쪽, 한내여중 밑에 있는 마을이다. 질편, 두리미 마을과 한 마을로, 예부터 기우제, 성황제를 함께 지내고 두레도 함께 하였다.

시령굴 마을은 논이 모두 천수답이라 비가 와야 모를 심을 수 있었다. 모를 다 심고 농사가 풍년이 들 것 같고, 일거리가 많아 일이 몰리면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두레를 하자고 건의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대개 ‘자네들 맘대로 하라’고 허락을 한다.

보통은 두벌 맬 때 두레를 하였으며 만물(세벌) 맬 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더러는 초벌 때 하였는데, 초벌 때는 비가 풍족해야 하였다. 시령굴 마을에서는 콩밭 때는 두레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두레를 하기로 결정되면, 질편 마을 정자나무가 있는 성황당에서 마을 일꾼들이 모여 두레를 조직한다.

두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20여 세로 장정 품앗이를 할 수 있어야 했고 제한은

없었지만 약 50여 세까지 참여하였다. 일꾼은 모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한 집에서 몇 명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두 모이면 약 50~60명 정도 되었다. 두레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술 한 동이를 사라고 놀리기도 하여, 실제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 나이 어린 사람은 논을 매지 않고 심부름 같은 것을 하였다.

논 주인은 논매는 비용을 부담하였다. 평상시에 일꾼을 얻어 작업하는 것보다는 약간 싸게, 즉 한 마지기에 20,000원 정도 들면 15,000원 정도 비용을 부담하였다. 시령굴 마을은 가난한 사람이 많아 메마르다는 뜻으로 녹두밭윗머리라고 부를 정도였다. 머슴을 둔 사람은 시령굴에 2집, 질편에 1-2집, 두러미에 1-2집 정도였다. 갬발 이석구의 논이나 북정자 이진구 논을 소작하는 경우도 많았다.

두레의 직책으로는 좌상과 공원이 있었다. 좌상은 노인이 하였는데 큰 살포를 가지고 다니며 지시만 하고, 공원은 논에 함께 다니면서 일을 떼고 붙이고 하는 사람이었다.

시령굴 마을 주변에는 오랏두레, 평곶두레, 화산동고리굴 두레 등이 있었는데 평곶두레가 크고 잘 되었다. 꽃내비까지 하였다고 전한다.

시령굴 마을의 두레는 해방 직후에 없어졌다.

2) 두레 노동

아침 8시쯤 풍물꾼이 성황당에서 풍물을 치면, 두레 일꾼들이 모여든다. 일꾼들은 모두 허리에 호미를 차고,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신발은 신지 않고 맨발인 채 모여든다. 신발을 신지 않아야 이동하기 편리했기 때문이다.

마을의 큰 기는 정자나무에 꽂아놓고 작은 기를 앞세우고 풍물패가 뒤따르며 들로 향하여 행진한 후, 농악에 맞추어 논매기를 시작한다. 주로 시령굴들, 두러미앞들, 질편앞들, 오랏앞들 등에서 일을 하였다.

초벌매기와 두벌매기는 모두 호미로 땅을 파고 매는데 초벌을 매기는 장정이 하루에 5~6되지기(100~120평) 매고, 두벌은 1마지기 정도 맨다. 만물(세벌)은 손으로만 매는데 약 1.5마지기를 맨다. 두레는 보통 두벌매기를 한다.

땃것(술참)은 막걸리와 약간의 안주를 내는데 마을 기금으로 부인들이 공동으로 준비한다. 아침 저녁 땃것을 먹고, 점심은 각자 집으로 가서 먹는데 공동으로 먹는 경우도 있다. 두레를 짤 때 정할 나뉠이다. 저녁은 각자 집에서 먹는데 가끔 부잣집에서 놀술을 줄 때도 있다. 놀술은 막걸리와 김치, 찐지(배추로 만든 김치) 등 간단한 안주였다.

풍물에 맞추어 일을 하였고 오후가 되면 술에 취하는 경우가 많아 일이 거칠었다. 밭에

밭히거나 흙덩이에 덮이는 벼가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넘어진 벼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따비일센다’라고 하였으며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나이 어린 사람들이 하였다.

이런 두레 노동은 3-5일 동안 하였다.

3) 두레 놀이

두레에 동원된 풍물은 징, 팽과리, 북, 장구 등 사물과 새납이었다. 상모 돌리는 사람은 없었다. 마을 기와 풍물패를 앞세워 들에 나가는데 처음 나갈 때는 질꼬냉이로 시작하고, 논에 도착하여 일이 배당되면 2채 또는 삼채를 친다. 그리고 한 논이 거의 끝나면 일꾼들이 등그렇게 모여들고 농악대는 일꾼들의 뒤로 빠져나와 잣은바리를 친다. 그러면 일꾼들은 “와” 함성을 지르면서 일을 끝낸다.

다른 마을 두레꾼과 길에서 만나면 길을 비키지 않으려고 실랑이도 벌이지만 대개 서로 어울려 놀고 춤추는 경우가 많다. 평설두레는 오랏두레하고 자주 만났다.

저녁 때 술이 얼큰하면 더욱 흥이 났다. 일을 끝내고 마을로 들어올 때나 놀술 먹으러 갈 때 마중나온 아이들이 있으면 꽃내비(무등을 태우는 것)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술에 취했기 때문에 아이들 허리를 다친다고 못하게 했다고 한다.

4) 두레의 결산

두레의 결산은 칠월칠석날 정자나무 밑에 모여서 하였다. 논이 면적대로 거둔 금액에서 비용과 마을 기금을 공제하고 나누었다. 따라서 논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 하였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품삯이 배당되었는데 보통 품삯보다 훨씬 싸게 배당되었다. 원래 두레의 뜻이 마을의 기금을 조성하고 일꾼들이 모여 흥겹게 놀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주와 일꾼들 모두가 양보하는 것이다.

칠월칠석날은 쌀 서너 말을 거두어 인절미와 송편을 많이 만들고, 개를 잡고, 막걸리와 돼지고기를 준비하여 하루 종일 정자나무 밑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물을 치고 놀았다. 이것을 ‘두레 먹는다’라고 하였다. 음식의 장만은 주로 반장집에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고, 정자나무 밑에서 먹었다.

2. 주교면 관창리 해창 마을 두레

1) 두레의 조직

해창 마을은 벼 50-100석 정도하는 부잣집이 몇 집 있었고 대개는 주포에 사는 일본인 정정룡태(正井瀧太)의 간척지를 소작하고 있었다.

비가 넉넉하여 모를 심고 나서 풍년이 예견되면 두레를 하였다. 두레는 마을의 상일꾼(장정일꾼)들이 상의하여 공론이 돌면 마을의 원로 노인들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날이 가물어 모를 모두 심지 못하면 두레를 하지 않는다. 모를 심고 두레를 하면 두레 기간이 약 1달 정도 되었다. 긴 기간 동안 두레를 했기 때문에 매일 한 것은 아니었고 필요한 날만 하였다. 두레 기간 동안에 자기 개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두레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공회당(일제 말기에 만듬)이나 부잣집 사랑방으로 모인다. 먼저 두레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좌상, 공원, 문서, 사령, 총각대방을 뽑는다. 좌상은 상일꾼들이 미리 통을 돌려 공론화하여 추대한다. 각 직책별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좌상 : 좌상영감이라고 불렀다. 나이도 많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대하였다. 두레를 대표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다.
- 공원 : 두레의 부책임자이다.
- 문서 : 논마다 일의 경중을 따져 품삯을 정하고 징수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일꾼들의 출석도 점검하였다.
- 사령 : 작업을 지휘하던 사람이다. 항상 긴 막대기를 들고 다니며 작업을 현장에서 지시하였다. 매우 엄하여 잘못하면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였다. 정 잘못하면 좌상 앞에 무릎을 꿇리고 벌을 주기도 하였다.
- 총각대방 : 장가 안 간 사람 중에서 골라 심부름을 시켰다. 나이가 들었어도 장가를 들지 않으면 총각대방이 되었다. 바자에 신발, 화롯불, 담뱃대 등을 지고 다녔다. 화롯불은 설참에 담뱃불을 붙일 때 필요한 것으로 종일 꺼지지 않게 관리하였다. 대개는 왕겨불로 하였다.

조직이 끝나면 마을 기를 마을 대동샘 옆에 세우고, 샘에 술 한 잔을 올린 후 풍물패는 마을을 한 바퀴 돈다. 이때 포나 과일은 놓지 않고 술만 한 잔 올린다.

두레는 보통 해창, 분사피 마을이 함께 하였다. 특별한 경우는 해창, 분사피, 뒷굴, 대숲말이 함께 하기도 하였고, 해창, 분사피, 대숲말이 함께 하기도 하였다. 특별한

경우는 마을 기금을 모아 상여를 만드는 경우이다. 상여를 메는 경우에는 해창, 분사피, 대숲말, 뒷굴이 한마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두레는 해당되는 마을이 함께 하는 것이다.

두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에서 50여 세까지로 장정품앗이하는 사람은 모두 참가할 수 있었다. 해에 따라서 한 집에 한 사람씩 나오기도 하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나오기도 하였다. 모두 모이면 60-70명이 되었다.

해창 마을의 두레는 6·25동란 무렵에 없어졌다.

2) 다른 마을 두레기의 인사

해창 마을에 두레가 나 두레기를 대동샘 옆에 세우면 뒷굴 마을과 대숲말 마을 두레기가 찾아와 인사를 한다. 두레기를 앞세우고 풍물패와 약간의 일꾼들이 해창 마을로 와 두레기에 절하고 술 한 잔을 올린 후, 풍물을 치며 두레기를 돌면, 해창 마을에서는 술을 대접해 보낸다. 다른 마을 두레기를 마중가거나 배웅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만약 인사를 하지 않으면 ‘경친다’고 하여 혼을 내 준다고 한다.

3) 두레 노동

두레 일은 모퉁 아시매기(초벌)를 하고 두벌매기는 하지 않았으며 가끔 세벌매기(만물)를 하기도 하였다. 아시매기는 호미로 흙을 파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많은 노동력이 들었다.

두레 작업은 먼저 풍물패가 대동샘 근처에 나와 풍물을 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사령의 지시에 따라 들로 향한다. 먼저 마을기가 앞장서고 풍물패가 뒤따르며 맨 뒤에 일꾼들이 따른다. 들에 이르면 두레기는 들 가운데, 쉬고 밥먹는 장소에 쫓아 두고 농악대의 인도에 따라 논에 들어가 김을 맨다. 힘든 일이라도 풍물을 치면 어렵지 않게 일을 하였다.

아침 나절과 저녁 나절에 새참을 먹는데 새참은 술과 찌개 등 약간의 안주를 먹는다. 술은 마을 공동 비용으로 마련하고 안주는 그날 작업을 하는 부잣집을 중심으로 마을의 여자들이 준비한다. 모든 지시는 좌상이 한다. 점심도 들에서 먹는데 마을 공동으로 준비한다. 남편들은 들에 나가 일을 했고 여자들은 부잣집에 모여 점심, 새참을 준비해서 들로 이고 나왔다.

두레 일은 상당히 거칠었다. 어떤 극단적인 경우는 호미를 잃어버려 맨손으로 기어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 호미로 흙을 파다가 흙덩어리로 덮거나 발로 밟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 벼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따비 일센다’라고 하였다.

4) 두레 놀이

풍물은 사물과 새납이 있었고 상모도 돌렸다. 꽃내비는 두 쌍을 하였는데 10-12살 먹은 아이를 어깨에 세웠다. 아이의 복장은 까치저고리, 색동저고리였다.

상모돌리기나 꽃내비는 두레 먹고 놀 때 하였다.

마을의 두레기는 흰 천에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썼고, 조그마한 영기(令旗)도 2개 있었다. 뒷굴의 두레기는 용이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두레 싸움은 별로 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주변 마을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어떤 마을도 도전할 수 없었다고 전한다. 주변 마을들이 모두 해창마을에서 분리된 마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두레의 결산

두레의 결산은 칠월칠석날 한다. 문서 담당자가 지주들한테 마지기당 얼마씩 받고 논의 없는 사람한테는 얼마간의 품삯을 주는데 평소보다 아주 적다. 마을의 기금으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마을의 기금은 풍물, 혼구(가마, 족두리 등), 차일, 상여 등을 장만하는 데 쓴다. 그래서 특정한 물건을 장만하기 위해서 두레를 하는 경우도 있다. 상여를 장만하기 위하여 해창, 분사피, 대숲말, 뒷굴이 같이 두레를 한 적도 있다. 상여를 만들려면 마을의 큰 소나무를 베고 오천에 사는 상여 만들기로 유명한 목수를 데려다 일을 시켰다고 한다.

이날은 마을에서 많은 술(막걸리)과 떡을 준비 하고, 남녀노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온종일 풍장치고 논다. 떡은 흰떡을 하는데 모두 메로 쳐서 하였다. 음식은 큰 집에서 차리고 비용은 마을에서 대며 마을 사람 모두가 돕는다.

도움말 주신 분(1999년 현재)

권창선(70)	동대동 672	시령굴	이종석(85)	주교면 관창리 779번지 분사피
조성태(81)	동대동 산 18	시령굴	하창동(86)	주교면 관창리 777번지 분사피

편찬·집필·감수 위원

□ 편찬위원

위원장	신준희 (보령시 시장, 2008. 01~2010. 06)
	이시우 (보령시 시장, 2010. 07~2010. 10)
부위원장	김충수 (보령시의회 의장, 2008. 01~2010. 06)
	김경제 (보령시의회 의장, 2010. 07~2010. 10)
부위원장	김재득 (보령교육청 교육장, 2008. 01~2010. 08)
	우영희 (보령교육청 교육장, 2010. 09~2010. 10)
부위원장	김석중 (보령시 부시장, 2008.01.~2009. 12)
	이홍집 (보령시 부시장, 2010.01.~2010. 10)
위원	박정희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정원 (보령시의회 의원)
	임기석 (대천문화원장)
	전운수 (보령문화연구회장)
	윤병배 (전 대천문화원장)
	김석원 (전 한국예총지부장)
	김효기 (전 대천고교장)
	이봉주 (전 보령향교 전교)
	김남수 (보령시 자치행정국장, 2008. 01~2009. 12)
	이영우 (보령시 자치행정국장, 2010. 01~2010. 07)
	강일규 (보령시 자치행정국장, 2010. 07~2010. 10)
	김장섭 (보령시 경제개발국장, 2008. 01~2008. 12)
	이용우 (보령시 경제개발국장, 2010. 07~2010. 10)
간사	명희철 (보령시 문화공보담당관, 2008. 01~2010. 06)
	이왕희 (보령시 문화공보담당관, 2010. 07~2010. 10)

□ 집필위원

지리	황의호 (남포중학교 교장)
지질	이철우 (충북대학교 교수)
생물	하태경 (대천서중학교 교사)
역사	황의천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행정	임근혁 (전 웅천읍장)
경찰행정	신희균 (미산파출소장)
주요사건 사고	전운수 (전 정보과장)
교육	양화목 (대천고등학교 교사)

정 당 사회단체	신 재 완 (웅천고등학교 교사)
선 거	이 선 행 (법무사)
문화 유적	황 의 천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고 인 돌 유 적	황 의 호 (남포중학교 교장)
대 남해화상 백월보광 탑 비	최 영 성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언 어	송 하 순 (대천한문학원장)
문 학	문 상 재 (전 문인협회장)
예 술	임 기 석 (대천문화원장)
종 교	구 본 태 (주산산업고등학교 교사)
언 론	이 상 우 (디트뉴스 기자)
체 육	조 민 행 (관창초등학교 교감)
추 제 와 관 광	황 의 호 (남포중학교 교장)
농 업 축 산 업	복 근 채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 산 업	정 성 용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교사)
2차 산업	유 재 흥 (전 보령시청 공무원)
3차 산업 국영기업체	백 태 호 (보령시 산림과장)
민 속	황 의 호 (남포중학교 교장)
민속 놀이	임 근 혁 (전 웅천읍장)
민 요	이 소 라 (민족음악연구소 대표)
지 명	황 의 호 (남포중학교 교장)
성씨 인물	황 의 천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감수위원

이 문 중 (전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이 해 준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保寧市誌 (中)

인 쇄 일 2010년 10월 15일
발 행 일 2010년 10월 15일
발 행 처 보 령 시
편집·교정 보령시지편찬위원회

(비매품)